

# 金堤 金山寺 彌勒殿

張 起 仁 / 三成建築設計事務所

金山寺는 全北 金堤郡 金山面에 있으며 599년(百濟 法王 1)에 창건하고, 766년(혜공왕 2)에 眞表律師가 중건하였으나 임진란 때 불타고, 현재의 건물은 1626년(조선 인조 4)에 재건된 것이다. 이 절은 935년(건원 4) 후백제의 神劍이 王子책봉에 불만을 품고 그의 부친 견훤을 가두었던 곳이라고도 하며, 신라 法相宗의 本山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一說에는 任辰亂 宣祖 30년(서기 1597)에 燒失되었다가 仁祖 13년(서기 1635) 守文大師에 의하여 再建되었다고도 한다(韓國의 寺刹 11 金山寺 彌勒殿).

그 後 여러차례의 重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年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年 代	建立·重修者	비 고
創 建	599(百濟法王 1)		
重 創	766(惠恭王 2)	眞 表	
燒 失	1597(宣 祖 30)		
重 建	1635(仁 祖 13)	守文大師	
제 1 重修	1748(英 祖 24)	金波大師	
제 2 重修	1897(高宗 光武初)	龍溟大師	檀越施主
제 3 重修	1926(日政下)	金湖大師	總督府지원
제 4 重修	1938(日政下)	成烈大師	檀越施主

金山寺에는 彌勒殿外에 여러 建物들과 石造遺構들이 現存하며 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는 것이 많다. 약 500m 밖에 있는 一柱門을 위시하여 金剛門·普濟樓·大寂光殿·大藏殿·冥府殿·僧房·西殿등 그외 여러 建物外에 露柱·石蓮臺·慧德王師碑·五層石塔·石鍾·六角多層石塔·幢竿支柱 등이 있다. 특히 彌勒殿의 우측에 높은 臺를 쌓은 方等 戒壇이 있고 그 中心部에 石鍾形의 浮屠가 있어 이를 石鍾浮屠(宝物 26호)라고 한다. 이 戒壇은 石鍾浮屠이 있어 흔히들 佛舍利를 모신 塔으로 잘못 생각하는 수도 있지만 石塔이라기 보다는 어디까지나 僧家의 受戒儀式을 집행하는 聖스러운 壇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곧 受戒者를 중앙에 跏趺(跪坐)시키고 三師와 七證이 둘러 앉아서 戒法을 傳授하던 곳이다. 梁山 通度寺의 金剛戒壇과

같은 것이며 그 이름을 方等 戒壇이란 것도 三學의 根本이 戒에 있고 그로 얻어지는 慈悲와 智慧의 德華가 平等 四方으로 미친다는 뜻이 있을 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石造戒壇은 通度寺·開城 佛日寺·大邱 龍淵寺의 戒壇式 石鍾浮屠를 들 수 있다.

金山寺 彌勒殿은 朝鮮時代에 建立된 三層의 佛殿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三層木造建物이며 國寶 제62호로 指定되어 있다. 初層 및 二層은 正面 五間, 側面 四間이며 三層은 正面 三間 側面 二間이다. 外觀은 三層建物이지만 内部는 三層까지 通層으로 되어 있다. 一層 변두리 기둥의 높이는 3.94m(13尺), 고주의 높이는 通材로서 13.50m(44.5尺), 3層 처마높이는 15.10m(50尺), 지붕 마루까

지의 총 높이는 19.50m(64尺)이다. 建築面積은 260m<sup>2</sup>(약 80坪)이며 檐下落水內의 面積은 약 476m<sup>2</sup>(약 151坪)나 된다.

石造로 된 낮은 基壇위에 큰 自然石의 주춧돌(柱礎石)을 설치하고 기둥은 통나무를 治木하여 세웠으며 隅기둥(隅柱)은 보다 굵은 것으로 꾸며서 安全感을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귀솟음(中央間 기둥보다 귀로 가면서 점차 조금 높게 꾸미는 일)과 안솔림(기둥의 上部를 建物 안쪽으로 조금 기울게 하는 일) 등을 各層마다 比例 調和가 되도록 하여 視覺의 安全을 圖謀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면기둥 지름이 60cm(2尺) 정도인데 比하여 隅기둥은 75cm(2.5尺) 이상 1.1m(3.6尺)나 되는 것도 있다.

各層마다 지붕을 두고 最上 三層지붕은 合각지붕(八作지붕)으로 하고 있

다. 처마는 등근 처마서까래(檐椽, 長椽) 위에 부연(付椽, 浮椽)을 대어 所謂 겹처마로 꾸미고 있다.

壁은 一部 板壁으로 하고 其地는 모두 외(檜) 엮기 흙벽 회반죽 바름으로 되어 있다.

一層 出入門은 궁창판(분합문 밑에 끼운 널)을 낸 빗살 격자문으로 하고 있으며 二, 三層 窓에는 사룡(斜籠)을 좁게 대어 窓戶紙를 바르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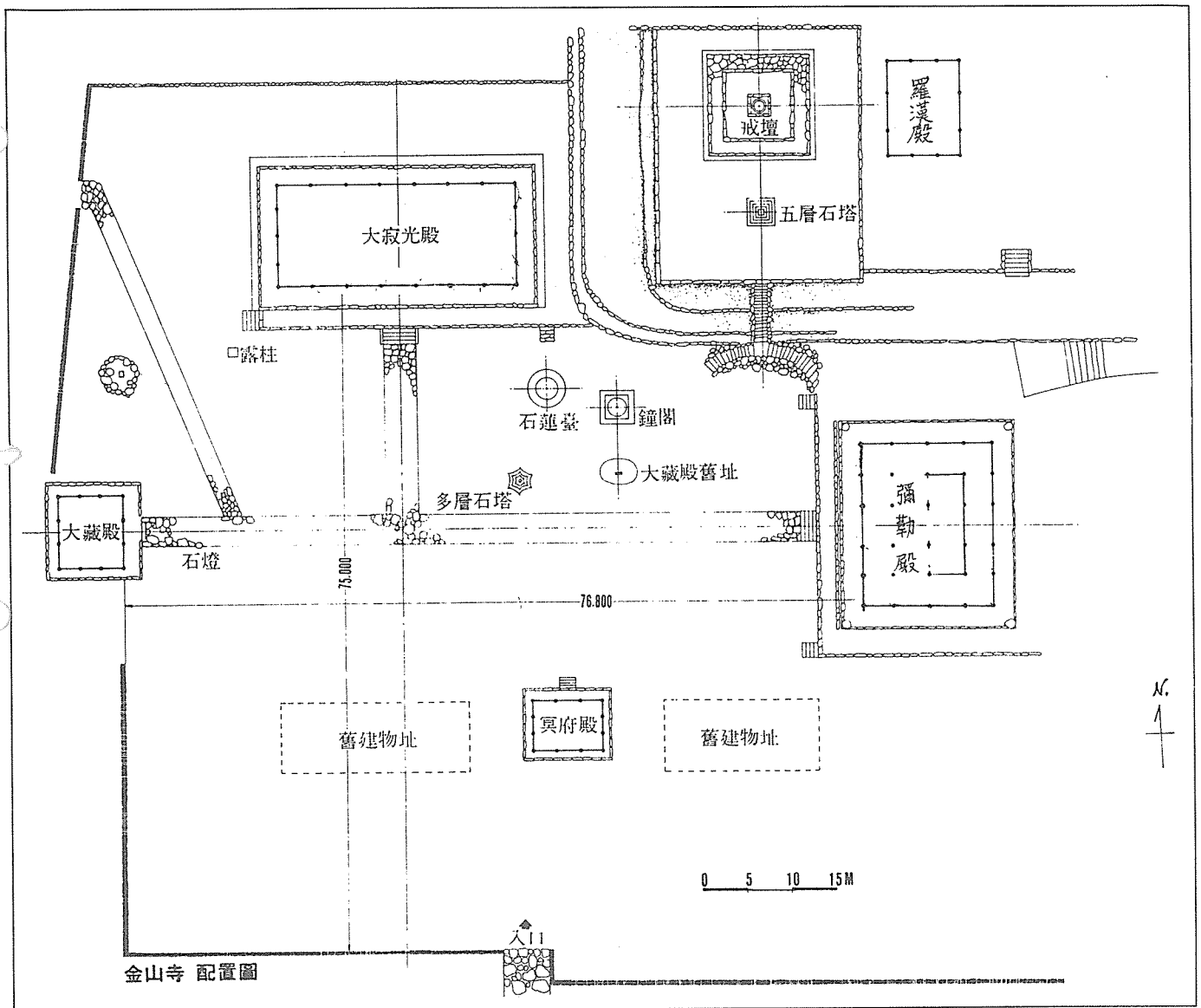
전면 二, 三層 창방(昌枋) 밑에 있는 사록창에서 採光이 되고, 그 밑은 낮은 벽으로 막고 後佛壁 뒤의 二層에는 전면 사룡대신에 板窓을 달았다. 前方의 三層 採光面에 의하여 内部는 意外로 밝다. 内部의 構成材도 比較的 簡潔 堅實하며 架構法도 明快 要領있게 되어 허식이나 과장됨이 없어 合理的인 構造를 보이고 있다. 그 内部의 廣大한 偉觀은 보는 이를 경탄시킬 따름이다.

架構方式은 初層 中間에 高柱(三層 通柱) 10개와 변두리기둥(辺柱) 18개를 세우고 二層에서 변주와 고주 사이에 退梁(退梁)을 건너지르고 그 위에 二層 辺柱(層斷柱)를 세우고 있다. 三層에서는 高柱가 그대로 辺柱가 되어 그 위에 合각지붕 架構를 꾸몄다. 이와 같이 內高柱가 二層 또는 三層의 辺柱가 되는 架構法은 木造塔이나 重層建物에 잘 쓰여지는 構造法으로 通材기둥으로서 各層을 合理的으로 結構하면서 外觀을 갖추는 手法이기도 하다.

栱包는 各層 모두 內外 二出目 五包作이다. 包山彌(쇠서)는 外部 重仰舌(仰舌 二개)와 草刻垂舌로 하고 위에 草刻한 雲工을 대었다.

檐遮는 斜切半圓形으로 밑을 아사내고 栱眼은 어깨만 따내고 있다. 側面 수서(垂舌)에는 蓮花를 새긴 것도 보인다. 귀隈大의 끝머리(추녀방향의 쇠서)가 용머리 조각으로 된 것은 후세에 개변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各層 前後面 中央間(御間)의 檐遮는 一般檐遮보다 길게하여 間包 하나로 柱心包 사이를 매우고 있어 이채롭다.

間包 두틀을 넣어야 할 것이지만 佛



壁(包壁)이 좁게 되는 것을 考慮하였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측면 中央間의 間包는 다소 넓기는 하나 첨차를 크게 하지 아니 하였다.

中央間의 첨차가 긴 栱包는 左右, 側面의 栱包가 同一한 치수와 同一한 간격으로 配置된데 비해 단조로운 처마 밑에 變化를 주어서 더욱 興味를 느끼게 한다. 山彌(仰舌·垂舌의 층칭)는 細長한 편이어서 纖弱한 느낌이며, 内部 첨차의 끝머리는 교두(翹頭)형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다.

垂舌나 雲工의 쇠시리(草刻한것) 등도 朝鮮中期의 特徵을 잘 나타내고 있다.

各層 天障은 内出目 도리까지 순각판(巡閣板-공포 사이에막아 대는 널)을 대어 막고, 一層 전면은 高柱 밖으로 빗널 반자로 하고 後面 高柱壁 뒤와 3層은 우물반자로 하고 그 中央 間은 一段 높게 꾸며서 變化粧

飾을 圖謀하였으며 한 格間마다에 학을 그려 넣었다.

外觀으로서는 莊嚴雄大하며 훌륭한 比例를 보이고 있으며 初層에 대한 2層·3層의 遞減率은 調和되고 있어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다. 지붕물매나 지붕마루곡·추녀마루곡 등의 휘어오름도 美의 極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여러 韓國建物中 3層建物이라는 것 外에도 驚嘆할만한 構成美와 律動的인 遞減比를 지닌 最優秀 建築으로서 特히 一般에게 알리고 싶은 建物の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内部는 中央 正面 三間과 側面 二間에 高柱를 세우고 그 後側 三間과 바로 옆 一間은 土壁을 치고 그 内部 三間은 佛壇으로 꾸미고 中央에 本尊 佛인 金銅彌勒 三尊立像 곧 有名한 丈六佛像(다만 現在의 것은 再建當時에 再鑄造된)으로, 또 左右에는 各 一佛像을 安置하고 있다. 이와 같은 佛像

의 群立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佛事中的 莊觀이라 할 수 있다.

初層의 편액(扁額)은 「大慈寶殿」, 2層은 「龍華之會」, 3層은 「彌勒殿」이라 했다. 이들은 모두 미륵불 봉안의 法堂을 뜻하는 것으로 미륵은 Maitreya로서 번안하여 慈氏라고 하므로 大慈寶殿이라 했고, 그는 後世에 出現할 분으로 華林園의 龍華樹 아래서 成道하여 衆生을 濟度한다는 뜻으로 3會에 걸쳐 說法하므로 龍華 三會의 說法이 있어 이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金山寺 事蹟記·韓國의 寺刹 11 金山寺·新增東國輿地勝覽·古蹟圖譜·國史百科事典·朝鮮建築史論 其五 藤島玄治郎·韓國建築樣式論 鄭寅國·韓國建築研究 尹張燮.